

## 한 편의 영화 같은 ‘활극’ 보이스피싱 막은 아파트 경비원

전화로 입주민 속여 거액 갈취  
몸싸움까지 펼치며 범인 체포

용당 한신문화타운의 어느 경비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운반책을 잡아 화제다.

지난 1월 3일 입주민인 김 씨 할머니는 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침대 밑에 숨겨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에 놀란 할머니는 아파트 출입구,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들의 지시대로 외출을 해 집을 비웠다.

그날 오후 2시에 낯선 남자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서성이는 것이 아파트 경비원 배재용(67) 씨의 눈에 들어왔다. 낯선 남자는 아파트를 빠져 나갔다가 20분 쯤 후 다시 돌아와 출입구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배 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CCTV로 지켜보고는 재빨리 낯선 남자의 뒤를 쫓았다. 1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1층에서 기다리다 가방을 메고 나오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뒀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은 배재용(왼쪽 두 번째)가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 수상하게 구는 모양새에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뒤통였고 배 씨는 범인을 제압해 경비실로 데려왔다. 가방을 확인한 결과 현금 3,600만원이 들어있었고 바로 112에 신고했다.

한신문화타운에서 8년째 경비원으로 근무

무하고 있는 배 씨는 평소 아파트 순찰을 꼼꼼히 하기로 유명하다. 배 씨는 “경비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힘이 닿는 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극으로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1000억 같은 1000만원

용호4동 익명 기부자 또 방문  
6년째 성금… 총 4800만원

1월 20일 용호4동 행정복지센터.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중에 50대 후반의 남성의 민원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한 뒤 편지봉투를 두고 사라졌다. 봉투에는 ‘2019년 정년퇴직을 해서 2020년도에는 지원이 어렵겠네요. 이해바라며, 형편이 되면 내년에 뵙지요.’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 기탁자는 어린 시절을 용호동에서 지낸 인연으로 용호지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총 4,800만원을 기탁해왔다. 성금 1,000만원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용호지역 4개동에 각 250만원씩 배분돼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용호동 도시재생 총괄센터장  
동명대 조승구 교수 임명

용호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에 동명대 조승구 교수(건축도시설계)가 지난 1월 20일 임명됐다. 부산건축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센터장은 2016년부터 남구 새마을을 총괄계획가로 활동하는 등 남구 지역 현황에 밝고 도시재생사업추진에 경험이 풍부하다.

조 센터장 전파동 카페거리 환경조성사업에도 참여했으며 현재 제29대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부산건축가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백용 남구청년회 회장

남구청년연합회 신임회장 하백용(용당동 YD 인테리어 경영)씨가 선출됐다. 하 신임회장은 용당동 청년회 회장, 남구청년연합회 재무·외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남구청년연합회는 지난 1월 18일 해군회관 1층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정춘식 남구체육회 회장

제3대 부산광역시 남구체육회 회장에 정춘식 부회장이 당선됐다. 지난 1월 15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 신임회장은 지난 2012년 남구 생활체육회 이사과 테니스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부산 테니스협회 부회장, 남구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복지시설 소식

#### 주민참여 북 콘서트 열어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성희)은 지난 12월 23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 대학생,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에 나가서 뭐할건데?’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사들이 마을에 나가게 된 계기, 좌충우돌 마을활동 실천이야기, 마을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암동 주민들과 재개발로 동네 목욕탕이 사라진 것을 이슈로 모여 해결방안을 찾던 목욕탕 놀이 같은 공청회 이야기, 문현2동 주민들과 공유공간인 골목성시를 마

련하는 과정, 동네아저씨의 급주를 돕기 위해 아저씨에게만 술을 팔지 않는 가게 이야기, 노숙생활을 하던 아저씨의 집을 동네에서 함께 구한 이야기, 인정이 돌고 돌아 도움을 받은 아저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다시 주민들과 나누는 이야기까지. 마을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민들의 삶과 사회복지사의 실천과정을 볼 수 있다. 지역 안에서 주민들과 해결방법과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마을에 나가서 뭐할건데?’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 마을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 어르신 주간 보호

지게골 노인주간보호센터(남구종합복지관 지게골분관 2층)에서는 치매 및 노인성

당의 성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방위협의회는 12월 20일 18종 세트 컵만 30박스를 기부해 혼자 식사가 어려운 남성1인가구 등 30세대에 전달되었다.

○…용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국헬스케어(주)는 12월 30일 ‘THE 따뜻한 온(溫)’가 난방유 전달 행사를 열어 5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소외계층 20세대에 전달했다.

○…제일안전개발은 12월 23일 남구에 쌀10kg 100포(3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주)우성종합건설은 12월 28일 남구에 이웃돕기성품 라면40개입 500박스(9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남구한의사회는 1월 6일 남구에 이

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희망2020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동참해 성금 500만원, 쌀 5,000kg 등 총18,750천원 상당의 성금·성품을 남구정에 기탁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제7(남구)지역 소속회원들은 지난 1월 8일 남구장애인복지관에 10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하고, 저소득 3세대에 2,500만원 상당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용호동삼월주택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2월 30일 용호3동에 쌀33포(백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용호1동 마을살림리더는 지난 12월 19일 어르신 및 장애인 5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연극 달동네를 관람하며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쳤다.

### ■ 온 정 을 나 누 주 세 요

#### 아이들 위해 희망 잃지 않는 미정 씨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미정(53·가명) 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며 종합사회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였습니다.

미정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 남편 그리고 두 명의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8년 전 남편은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정했던 남편이 점점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 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미정 씨를 폭행하였으며 급기야 큰 아들에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미정 씨가 사랑한 남자이기에 ‘자신의 몸이 아파서 그렇겠지’라고 수백 번을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폭행이 5년간 지속되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하였습니다. 결국 작년 겨울 남편이 갑작스럽게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편의 산재급여와 미정 씨의 간헐적인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유

지하였으나 남편이 가출을 하면서 산재급여 통장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미정 씨의 큰 아들은 올해 중학교 입학 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등교하지 거부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치료비가 없어 얼마로서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남편의 가출 이후로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보증금 300만원까지 모두 탕진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해도 미정 씨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고 일을 하고 싶으나 아픈 큰 아들과 이제 어린 이집을 다니고 있는 막내아들을 두고 근로를 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합니다.

미정 씨는 두 아이의 어머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미정 씨와 자녀들에게 꿈같았던 날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주는 따뜻함을 경험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 성금 감사합니다

2020년 1월에 게재된 성미씨 사연에 대하여 사단법인 나눔재단 20만원, ○○○은정님 5만원, ○○○은정님 3만원, ○○○은정님 2만5천원, ○○○은정님 5만원을 성미씨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 도움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607-4870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부산은행 315-01-000297-0

(예금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붙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시-홍길동정)

### ■ 사 진 으 로 보 는 동 네 소 식



용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일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성품을 소외계층 100세대와 경로당 10곳에 전달하는 행복나누기를 개최했다.



감만1동 동국제강과 산하 송원문화재단은 지난 15일 관내 어르신 40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각 2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감만2동 지난 7일 동 평생학습관에서 각급단체원 100여명이 참석해 연석회의 및 주민복지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우암동 나눔플러스센터는 지난 12월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주민에게 라면 130박스(250만원 상당)와 장학금 40만원을 전달했다.



문현1동 화신태권도는 원생들이 모은 성금으로 라면770개(385천원 상당)를 구입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문현2동 작은사랑 나눔회는 지난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6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문현3동 주민자치위원회, 문현3동새마을금고, 좋은이웃, 부산한빛교회, 성진부드의 후원으로 설맞이 행복나누기를 실시했다.



문현4동 새마을문고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어려운 이웃 18세대에 겨울이불(100만원 상당) 전달했다.